

# 앙드레 말로 研究\*

—이탈·집착의 對應構造와 〈宿命의 豫示〉—

金 鵬 九

(佛文科 教授)

## 目 次

### 序 言

#### I. 이탈·집착의 대응구조

##### A. 이탈 *détachements*

1. 失郷·浮動人間群
2. 血緣·가족관계
3. 男女관계의 파탄과 에로티슴
4. 反社會·反世俗의 고립인간群

##### B. 집착 *attachements*

1. 家門·王國·黨
2. 男兒의 結盟과 信義
3. 친구관계와 同志愛
4. 예술과 혁명

##### C. 작가 자신의 傳記的 사실과의 부합—〈생애·작품〉의 대응구조

1. 실향·부동인간↔가문의식과 黨
2. 혈연·가족관계의 파탄↔男兒의 結盟과 信義
3. 부정적 비극적 男女關係↔친구관계와 同志愛

4. 反社會·反世俗↔예술·혁명·조국과 유럽文化

#### II. 대응구조의 형태적 특질과 의미

1. 형태적 특질
2. 〈생애·작품〉을 일관하는 대응구조의 의미 해독

#### III. 大回歸과 逆이탈의 드라마

1. 조국·유럽文化 옹호(文化史的 反코뮤니슴)
2. 同胞에의 귀속
3. 코뮤니슴 이탈의 경험적 대응구조

#### IV. 말로의 〈숙명〉과 神祕

1. 숙명의 수락과 〈작품을 통한 豫示 préfiguration〉 현상
2. 回歸의 例外: 현연·가족관계
3. 최후의 숙명과 신비: 이킬레스의 밤 뒤꿈치와 외톨의 죽음
4. 말로 〈생애—작품〉의 특질 結語—예술과 신비

## 序 言

앙드레 말로가 세상을 떠난지 만 3년, 그간 그에 관한 저서는 우리가 아는 것만도 6권이 나왔다. 그에 대한 회고 내지 전기 부류가 주종을 이루는 것도 그만큼 그 인간과 생애가 범상치 않았기 때문이리라. 그의 행동상의 편력은 널리 알려진 바이지만, 그보다도 엄청난 그 정신적 편력과 섭렵의 넓이와 깊이는 참으로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20代 청년기에 벌써 프랑스 亡命中인 트루트키와 이테올로기와 예술에 관하여 거침 없이 대화·논쟁을 교환

\* 본 연구는 위 목차와 같은 전체적 구성을 갖추고 있으나, 지면관계상 그 일부(고덕체인쇄부분)만을 여기에 게재한다.

했고, 지이드·발레리도 번번이 守勢에 물려 당황케하던 그 해박하고도 날카롭고 따를 수 없이 날쌔 思考의 속도. 후반기(二次대전을 분수령으로 그 생애와 작품을 兩分할 수 있다)에는 몇 천년간의 고대 예술을 통하여, 크메르·이집트·그리스·로마文化는 물론이고, 잉카·비잔츠문화, 힌두·불교 문화와 종교, 중국·일본 문화 등을 거침 없이 넘나들며 탐색했고, 한편 드골 만년의 유일한 격의 없는 말 상대이기도 했거니와, 네루·周恩來·毛澤東과도 각각 그들의 관심사에 관하여 그들과 대등한 깊이에서 거침없이 응대할만한 인물, 확실히 巨人의 〈內而의 깊이〉를 간직한 작가라 하겠다. 그밖에 각별히 우리 관심을 끄는 것은 그가 첫 3 작품에서 전부 東南亞를 무대로 삼았으며, 그것만으로도 유럽문학에서 진례 없는 일인데, 거기서 광목할만한 빛가지 역사적 예언까지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세계로 필자는 그의 사망 즉시 칭을 받고 황급히 추도의 글을 草하여, 거기서 젊은 시절 몇 차례 강단에서 그를 다룬 감회와 추억을 더듬어 그의 〈생애·作品〉(작품들을 포괄하는 생애자체가 빚어놓은 작품의 뜻)을 강조하고, 〈퇴후의 驗士〉云云으로 끝맺은 바 있다. 작품으로 흥미를 주되 그 作者의 생애가 실망을 주지 않는 그런 작가도 흔하지 않은 터에(그래서 작가는 대체로 자기 작품을 생애와 따로 떼어 주기를 바란다), 말로의 생애야 말로 최고 최대의 작품이라는 생각에서였다.

그후 3주기를 맞으며 그 최대의 슈퍼 로망(생애·작품)과 작품들을 관통하는 어떤 비밀이 있으리라는 어렵פות한 생각과 함께 그 탐사의 실마리같은 것을 잡은 듯이 느끼고 그 탐색 추적을 걸심했다. 또한 표현이지만, 위에서 개관적으로 말한 우리의 파악이 핵심을 지른 것이라면, 생전에 그토록 자기 전기적 사실에 인색하던 그도 우리를 선선히 맞아들여 자기 세계를 열어보여 줄 것으로 기대하고 시작한 것이다.

여기서 근자 유럽 특히 프랑스에서 성행하는 문학비평의 갖가지 方法들과 우리 문단의 그것에 대한 관심과 우리 나름의 방법론에 관한 각별한 관심이 이 試論의 착수론 크게 재촉했음을 말해 두어야겠다. 우리 주위에서 보듯이 너무나 소박한(실은 너무 낙후된) 비평의 기준 설정과 적용, 혹은 구미의 어느 세롭고 특수한 방법론 내지 도그마를 그대로 援用하는 횡포도 난처한 일이지만, 유럽(특히 프랑스)에서문학을 다룬 학문쪽으로 끌고 가거나, 특히 작품에서 작가를 몰아내려는 방법론에 대한 우리의 반발도 숨길 필요가 없었다.

무릇 특수한 비평방법을 과시하면 할수록 그만큼 텍스트를 보는 시야는 좁아질 밖에 없다. 그 중에도 作者逐出의 비평은 흡사 의사가 교과의 입을 봉쇄하고 자기 독특한 특수 검사기구와 방법단으로 검사·진단하기를 고집하는 것과 같아서, 어떤 면에서는 어쩌다 용케 알아맞춘다는 신기한 점도 없지 않겠으나, 결국은 어리석은 고집임을 변할 수 없다. 한 작품만을 畧上에 놓고 분석한다면 모르되, 두 작품 이상에 어떤 같은 형태, 같은 구조 혹은 같은 생각이 되풀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작품 이전의 作者의 삶 속에서 형성된 독특한 집념이나 기질·기호·편향 내지 고정관념들의 소치이며, 그것이야 말로 그의 생애와 따로

될 수 없으며, 의식하건 못하건 그 작가가 작품에 적어놓은 가장 특징적인 刻印, 즉 그의 <생애—작품>의 핵심적 刻印일 밖에 없다. 따라서 傳記上の 사실들은 바로 그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도 유일한 자료일 밖에 없다.

이 <생애·작품>의 개념은 종래의 생애와 작품의 구별을 넘어뛰어 하나로 포괄하여, 작가의 창작활동과 그밖의 삶(우리가 전에 구별한 바 <원초적 자아·창조적 자아·사회적 자아> 3구분에 대응되는)의 구별도 넘어뛰어 하나로 종합·통일하는 원리도 정립된다. 말로의 작품에서 출발하여 드디어 그 <생애·작품>의 어느 작가의 그것과도 다른 말로의 가장 본질적이며 특징적인 점들을 탐색하여 포착 抽出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택한 (차라리 부과된) 방법은 아래와 같다. (종전의 주장대로 여기서도 작가의 傳記上の 고증자료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참고·연구서를 배제하고, <오직 작가의 텍스트만을> 상대하는 입장을 고수한다.)

a) 그의 작품에서 별로 탐색할 필요도 없이 첫눈에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공통점, 그것도 어떤 이념이나 사상, 테마 등속과는 관계없이, 분명한 형태로 드러나는 공통점은 등장인물들의 삶의 형태들이다. 등장인물 거의 모두가 조국을 떠나거나 국적의식이 상실되고, 일정한 사회에 뿌리박지 않고 <浮動하는> 인물들이며, 정상적인 가정이나 夫婦관계조차 가지지 않은, 따라서 자연스런 전통적인 일체의 연줄 liens을 끊어버린 <고립된> 인간군들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단 일체의 사상·철학·테마 등을 도외시키고, 등장인물들의 <對他關係>, 즉 나와 남(인간관계는 물론 그밖의 조국·사회와 黨이나 교회 등, 모든 사회적 실체를 포함)과의 관계의 표본을 추출하여, 그 類型 특징을 가려(여기서 그 등장인물의 철학·사상·인생관 등과 기질·집념·취향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분류한다. 그 결과 그 人類들이 뿌리 박힌 생활환경과의 관계: 조국(고향)·혈연가족(가정)·男女관계(同居·징부·창녀)·社會(世俗), 등에 대한 철저한 이탈(거부·부정·멸시·증오)현상이 드러난다.

b) 표본 추출의 대상 작품은 전반기의 3大小說「王都의 길」(1930), 「征服者」(1928), 「人間條件」(1933)으로 국한한다(발표年代順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몇 가지 확고한 이유로하여 「王都의 길」을 첫 작품으로 간주한다). 명성이 확립되기 이전 5년간에 연속 던진 이 3작품이야말로 가장 순수하게 말로적인 모든것이 집중 투입된 작품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가장 <순수하게>라 한 것은, 작가가 일단 명성을 얻고 나면, 그 명성·넒려 퍼진 그에 대한 평판·이미 발표된 작품 등이 그 작가에게 거꾸로 심리적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例컨대 「人間不平等 起源論」을 발표한 후, 거꾸로 그것이 붓소의 <自我革命>을 촉진시켰듯이). 그뿐더러 그후의 大作「希望」(1937)은 시종 전쟁터가 무대이며, 픽송보나 르포르타지의 성격이 강하므로 우리의 작업에는 적합치 않다. 단 보충설명에 필요한 자료는 전·후기 전작품에 걸쳐 참고 한다.

c) 그런데 이탈리아만으로는 삶의 의미는 고사하고 생존자체가 부정되어야 하므로, 그 보상으로 반드시 각 인물마다 독특한 집착(공정·참여·사랑·복종 등)의 표본을 추출할 수 있다. 여기서 4가지로 크게 분류되는 <이탈·집착의 對應構造>가 밝혀지고, 그것은 하나의 간략한 圖表로 요약될 수 있다. 말로의 비밀(가장 본질적이며 특징적인 점)은 바로 그 대응구조 속에 들어 있을 것이 분명하다. 그것이 그의 내면세계와 外向的 의지 및 외부세계에서 나타나는 그의 행동일체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d) 작품에서 抽出하여 類型·특질에 따라 작성된 <이탈·집착의 대응구조>를 말로의 전기적 사실들에 비추어봄으로써, 그 <대응구조> 설정 자체의 정당성을 확인하며(즉 거의 대부분의 항목이 일치하고, 작품에서 약간의 變型이 있더라도 그 본질적 의미는 같음), 그 대응구조를 생애 위에 중복시켜 공통점을 도려내어 재정리함으로써 <생애·작품>의 대응구조로 轉置한다.

여기서 적어도 말로의 경우는 유달리 강렬히 드러나는 그 일치로 하여 <글—작품 oeuvre-écriture>과 대응·부합되는 <삶—작품 oeuvre-existence>의 성격이 뚜렷해지며, 따라서 이 양면을 혼연일체로 종합하는 <생애—작품 oeuvre-vie>의 개념설정의 근거와 타당성도 확고해지며, 비유를 넘은 實在性을 띄게 된다.

e) 이렇게 얻어진 <생애—작품>의 대응구조를 그 틀(형태)과 그 속에 담긴 내용(의미)를 아울러 해독함으로써 일단 3大小說을 중심으로 抽出된 표본을 기본자료로 삼아 말로의 <생애—작품>의 비밀들이 절로 드러남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가 2차 세계대전을 분수령으로 말로의 一大 전환, 자연적·전통적인 일체의 연출에서의 <이탈>에서 되돌아오는 반면, <집착>중에서도 가장 非自我·反傳統的이며 가장 강력한 국제정치적 연출(코뮤니스트 黨과의)에서 逆이탈(이탈과 동시에 적대투쟁)의 大回歸 현상이 있음을 우리는 미리 알고 있다. 그 반면 이 전기상의 일대 전환과 격동을 통과하고도 그의 <생애—작품>의 대응구조와 그 특질 및 핵심적 요소들에는(특히 <집착>면에서 그 방향과 내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음을 세밀한 검토로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우리의 첫 목표는 여기까지였고 또 기대한만큼의 성과를 거둔것으로 자부할 수 있었다.

그러던 중 뜻밖의 현상에 부딪치게 된다. 첫째로 우리가 말한 말로의 <大回歸>가 단순히 자연적·전통적·情的인 연출의 거부에서 그 옹호로, 따라서 꿈(이상)과 의지의 志向이 正反對의 성격의 진영(혁명)에서 방향을 돌려 조국과 유럽文化 쪽으로의 전환을 뜻하는 단순한 이념적 方向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로 그 <생애—작품>의 전반기와 후반기의 의미가 아주 逆轉한다는 사실말이다. 즉 전반기의 이탈리아 모두 <숙명의 거부>(조국·혈연가족관계 등이 우리의 의사나 의지와 관계없이 정해진 최초의 숙명적 연출임을 상기)에서 <숙명의 受諾>으로의 역전이다.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이 사실로 옮겨지자, 놀라운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한다.

우선 작품을 통한 그의 역사적 豫言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먼 훗날 저 자신의 생애에 일어날 <숙명의 豫示들 préfigurations>의 불가사의한 현상이 눈에 띄기 시작한다.

다음은 大回歸에서 세삼 대응구조의 各項을 검증하자, 전반기 이탈에서 자연적 전통적 언술들 중에도 가장 가깝고 가장 情的이면서도 가장 되풀이 부정된 혈연·가족관계(가정)가 예외로 남는다(「反회고록」에서 강조). 그런데 <가정 파괴에 의한 해방>(「인간조진」의 엠멜리크)이라는 혹독한 상징을 염두에 두고 후반기의 말로의 傳記의 사실들을 추적하면 드디어 그의 전<생애—작품>중 최대 최후의 <신비>에 부딪치게 된다. 신비를 논증할 논리는 없다. 여기서 감히 우리는 논리의 문맥을 벗어나 몇가지 假設을 덧붙이는 것으로 끝맺기로 한다.

작품에 나타나는 등장인물들의 對他關係에 관하여 몇 가지 附言할 필요를 느낀다. 한 개인에 있어서, 나와 남(나밖의 一切의 대상)과의 관계의 類型은 그가 소속된 역사적 공동체의 언어 풍습과 마찬가지로 이에 순응하건 반발하건 간에, 관례적으로 혹은 인정상의 자연스런 경향으로, 다소간에 규범적인 성격으로 나 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그 무엇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 전래의 윤리나 종교처럼 뚜렷한 德目이나 계율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극히 모호한 관습·추세·자연스런 情的유대감 따위로 개인을 그쪽으로 誘引하는 그 무엇이다(혈연간의 사랑, 孝道, 友情, 夫婦愛, 祖國愛 따위). 그러면서도 때로는 개인의 이념이나 그 시대의 사조, 지배적 이데올로기보다도 더욱 뿌리깊이 박혀(때로는 눈에 띄지도 않을 정도로) 은근하고도 끈질긴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인턴쇼날 혁명사상에 경도되었던 많은 인텔리들이 전쟁시에 조국이 위태로와지자 조국수호의 戰列에 가담하는 것도 그 一例이다.

프랑스 역사상에서 현저한 예를 들겠다. 5세기末 끝(옛 프랑스 지역)에 대한 로마의 지배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프랑크族 Francs이 침입하여 프랑스 최초의 王朝(메로베 Mérové)를 세운다. 5세기 동안 로마의 식민지로 개화된 갈로—로맹(로마화된 골사람들)에 비하면 프랑크족은 야만족에 불과했고, 王 클로비스 Clovis는 무력으로 정복은 했을망정, 그 월등히 높은 文化를 야만으로 지배할 수 없음을 알고, 王朝 자체가 갈로로맹과 同化(즉 文化的 굴복)하여, 기독교로 개종하고 언어·풍습·제도 일체를 원주민식으로 추종할 뿐 아니라, 오히려 프랑크족을 숙청 혹은 기피하고 원주민을 등용하여 통치했다. 8세기 중엽에는 절로 衰亡하고 카를로 王朝가 대신 들어서, 한때 온 유럽을 석권(샤를르마뉴 皇帝)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세기 말에 또한 어이없이 衰亡하여 카페王朝가 들어선다. 결국 5백년간에 두 왕조가 교체되고, 카페王朝는 그후 프랑스 혁명에 이르기까지 8백년의 통치권을 누리 셈이 된다.

그런데 첫 두 왕조의 短命의 원인은 어떤 정책의 실패나 외적의 침략으로 정복된 것도 아니고 내란 相殘의 결과일 뿐이다. 그 내란상잔의 먼 근원을 캐면 실로 어처구니 없는 사

실을 발견하게 된다. 즉 모든 것을 갈로·로명화한 프랑크族 출신의 王朝가 王家 안의 재산 상속문제만은 바꾸지 못하고 프랑크族 관습대로 王子들간의 균등분배 원칙을 따른 것이다. 그리하여 제 2대에 국토의 4등분이 3대에 이르러 12등분으로... 이렇게 하여 결코 전국이 기하 급수로 분할되어 서로 세력 싸움 끝에 <절로 衰亡>한 것이다. 5백년의 경험 끝에 카페 王朝는 長子 상속의 원칙을 세워 8백년을 지탱할 수 있는 것이다. 즉 王家 안에 뿌리 깊이 박혀 있던 재산을 틀리싼 인간관계의 관습이 5백년간이나 눈에 띄지도 않은 채 그 슬한 내란·상잔 왕조의 衰亡 등의 파란으로 表面化되어 노출된 것이다.

아주 가까운 예를 들어보자. 李光洙는 「再生」(1921)에서 이미 新女性들의 윤리적 타락과 性的 墮落을 개탄한 바 있지만, 半世紀 후에 女大生들이 性開放으로까지 西歐化하고도, 결혼 후에는 <나같은 것이 될까봐 딸 두기가 두렵다>고 고백하더라. 결국 社會人이 되자, 그 사회 몇 백년 전래의 남녀간의 인간관계의 관습적인 힘에 빨려들고, 그 관습으로 복귀되고야 만 것이다. 이 개인의 관습 기억에 대한 회고적 거리낌, 그것이 바로 그 사회의 전통적 <대타관계>의 뿌리깊은 誘引力의 하나다.

둘째로 주목할 점은 작가와의 관계에 있어 그 배경이 되는 사회전래의 대타관계의 초개인성과 持久性이다. 한 작가의 이데올로기나 문학관(문학사조로 받아들여지는), 또는 사상적 변화는 사회변화와 관계 없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얼마든지 사회를 앞지를 수도 있다. 예컨대 우리 나라 문학은 新文學 초기에 이미 많은 작가가 마르크스주의 문학사상을 받아들였고, 언데적으로 프랑스문학을 앞지르고 있다(프랑스는 30년대 이후). 그러나 그 작품에서 등장인물들은 결코 조국 이탈 무국적 고립인간이거나, 혈연·가족관계의 연줄을 否定내지 거부하는 인간상이 지배적일 수는 없다. 이데올로기는 아무리 제빨리 수용변혁할 수 있어도, 등장인물의 對他關係는 그 사회에 뿌리박힌 관례·풍습의 제약을 벗어날 수 없으며, 그것을 무시할 때는 작품자체의 리얼리티가 상실되어 그 사회 독자에게 먹혀들 수가 없기 때문이다. 사회변화가 뒤따르지 않는 한, 그런 대타관계는 성립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北韓에서 아직도 우리와의 동질성이 남아있고, 그 硬化된 사회주의에 소극적인 저항이라든 하는 힘이 남아 있다면, 그것은 민주주의나 민족의식 보다도, 조상숭배·제례 등의 관습일 것이다.)

그러나 앙드레 말로 작품에서 현저한 그 고립·浮動人間群의 등장은 언제부터인가? 앙드레·지이드의 예외적인 작품(소위 관념소설) 「팔뤼드」, 「프로메테」, 그밖에 「背德者」와, 「法王廳의 地下道」의 특수 인물 라프카디오 등에서 그 유형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이드에 있어서도 결국 「蕩兒 돌아오다」로 것처럼 절저할 수는 없었고, 윤리적 反抗의 시도에 그치고, 내개는 가정안의 갈등이 소재로 된 작품들이 뒤따른다. 바로 다음 세대 듀아멜 G. Duhamel의 代表作이 「파스키에家の 年代記」이며, 말로보다 5살 연장인 마르탱 뒤 가아르 M. du Gard의 대표작 역시 「티보家 사람들」로 한 가문을 등장시킨 것은 말로 문학과 대

초를 상징하는 듯이 보인다.

그리고 보면 그후 사르트르의 거의 전 작품에 걸친 인물들, 카뮈의 「異邦人」의 등장인물들, 「케스트」의 일부 인물 「전략」의 유일한 독백 주인공은 절치하다. 이 점에 있어서도 말로는 그 이전 세대의 문학과 절연히 갈라 놓은 선구자라 할만하다. 어제서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가는 간단히 설명할 수 없을 터이지만, 우선 문학면에서 1920년대까지의 코스모폴리티즘의 유행과 그 뒤를 이은 인턴레쇼날에의 기대와 傾倒 풍조가 크게 작용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위에 예거한 세 작가 간에 등장인물들의 대타관계의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성격상의 차이는 아주 뚜렷하다. 말로의 대응구조의 특질을 중심으로 다른 두 작가의 특질도 간략하나마 結論 부분에서 논급하기로 한다.

## I. 이탈과 집착의 대응 구조

여기서 이탈(détachement)이라 함은 성격 혹은 심리적으로나 또는 사상적으로 他者와의 연관관계의 인줄을 否定하거나 혹은 적극적으로 거부·혐오내지 단절하는 태도를 뜻한다. 이에 대하여 집착(attachement)은 情的인 애착을 비롯하여, 정신적인 결합 혹은 의지에 의한 연줄의 고수 내지 복중 등을 통틀어 가리킨다.

말로의 前半期 3大小說과 그의 생애 양면에 걸쳐, 완전히 부합되는 이 데타슈망·(이탈)과 아타슈망·(집착)은 내용상으로는 相反되고, 구조상으로는 平行線을 이루며 對照하게 對應·對蹠 관계의 골격을 드러낸다. 따라서 이 항목만은 서로 대조하여 읽을 수 있도록 한 面에 두 칼럼으로 대응사항을 並記라도 하고 싶을 정도이지만, 간략한 도표와 달라서 상당히 긴 내용을 並記해보았자, 글의 효력발생은 독서행위로 이루어지며, 독서행위는 회화·조각의 감상과는 달리 시간적으로 單一線條的 전개로 실현되므로 동시적 대비의 효과는 얻을 수 없다. 그러므로 항목별 A, B로 시술하되, 후에 그 골격을 추리(구조)와 <의미>해독의 도표를 첨부하기로 한다.

### A. 이탈 détachements

#### 1. 失郷·浮動人間群

우선 초기 3大小說의 등장인물들의 거개가 고국을 떠나 東南亞(당시 佛領 인도지나: 越南·캄보디아·라오스 3國과 中國)에 흘러들어온 유럽인이며, 일정한 직업에 전념하지 않는 따라서 그 사회에 뿌리 박지 않은 인간들이고, 전통적인 한 가족 속에 귀속되어 있는 인물은 例外的일만큼 찾기 힘들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失郷·浮動人間들이라 할만하다.

그의 첫 모험을 소재로 삼은 「土都의 길」은 雙頭馬車처럼 두 主人公 페르캉 Perken, 클로드 Claude을 실고 진행된다. 관점으로 보면 클로드가 主이고 페르캉이 從이지만, 작품 안에서의 실제 행동과 작품 자체의 전개 양면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페르캉 쪽이다. 클로드르는 프랑스 사회의 정상적 생활을 거부하고 佛印(불령인도지나)으로 고대 예술품 도굴(그 목적부터가 反社會的이다)을 노리고 뛰어난 청년이다.

그가 불인을 향한 항해 중 배에서 만난 승객들의 화제의 주인공 中年期の 페르캉——선장의 말로는 〈영국 정보국의 간부〉같은 인상을 주지만 〈국장 정도로 일생을 끝낼 사람 같지는 않은 독일인〉이라 한다. 「독일인 혹은 덴마크인?」하고 반문하니, 〈베르사이의 협정으로 (독일이 빼앗았던 땅이) 返還되었기 때문에 덴마크인〉이 된 것으로 수정한다. 이처럼 국적부터가 모호하다.

그런데 이 두 主人公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자 즉석에 의기투합하여 생사를 같이하는 盟友로 결합된다.

「征服者」의 등장인물(장개석 같은 幕後人物은 除外) 12명을 국적별로 나누면,

중 국: 3(첸다이, 홍, 마오 링—우)

프랑스: 3(인 칭 話者, 뫼니에, 제라아르)

러시아: 4(보로딘, 니콜라이에프, 미로프, 갈렌將軍)

독 일: 1(클라인)

이태리: 1(베베치)

스위스: 1(主人公 가린, 국적은 스위스이지만 러시아 혈통, 모친 유태계 러시아인)

이 主人公 가린은 혈통이 그럴뿐 아니라, 廣東國民黨政府안의 對英國植民 투쟁의 선전 책임자로 자리 잡기 전에, 파리에서 아나키스트 틴에 끼어 비밀 낙태를 지원하다가 기소되었고, 그후 〈外人部隊〉에 입대했다가 탈영한 경력을 가진 철저한 반사회적 떠돌이 모험가이다.

실은 그들의 기질과 사고방식으로 보면 또박또박 국적을 분류할 필요도 없는 일이다. 중국인 지도자 첸다이를 제외하고는 그들 모두가 국적을 의식하지 않을 뿐더러, 기질적으로 떠돌이이며, 현재 그들이 投入된 社會에 전혀 뿌리박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회와 싸우기 위하여 〈對面〉하고 있을 뿐, 전혀 그 사회 속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더더구나 그 속에 귀속되기는 커녕 파괴의 대상일 뿐이다. 그들은 철두철미 失鄉(dépaysé)·浮動인 간상으로 굳어져 있다. 중국인 테러리스트 홍 마저도 고아라는 출신성분, 사회에 대한 철저한 증오심으로써 그 인간상의 극단적 대표라 할 만하다.

작품의 내용으로 보나, 中國 현대사의 전개로 보나 「征服者」의 延長線위에 놓인 「人間條件」의 등장인물들도 마찬가지로 〈잡종〉들이고, 上海로 흘러들어온 잡다한 부동인간들이다. 主人公 키오 一家는 예외적으로 父·夫婦 3인으로 한 가족을 이루면서도, 그 점에서 매우



상징적이다. 부친 지조르 Gisors는 프랑스인(은퇴 전 北京大 교수, 이데올로기 주입·전파자), 사망한 모친은 日本女人, 그 혼혈아 키오의 妻는 上海에서 出生한 독일여인, 3국적이 동거하며, 혈통상으로는 佛·日·그 混血·독일, 이렇게 4혈통이 모인 셈이다. 메이가 혁명 진영의 병원 의사로 근무할 뿐, 父子는 일정한 직업이 없다. 「정복자」의 고아 테로리스트 홍은 「인간조건」에선 첸(Tchen)이라는 이름으로 좀더 深化된 인간상으로 다시 등장한다. 그를 어린시절부터 돌보며 가르친 지조르老人이 보기에는, 첸은 <거의 비인간적인 철저한 自由로하여 철부철미 이념에 몰입>함으로써 <이에 中國人이 아니며>, <중국을 떠났다>고 까지 평한다.<sup>1)</sup>

여기서 또한 클라픽크 Clappique라는 인물을 등장시킴으로써 이 무국적·실향·부동 인간상의 한 典型을 보여준다. 상해를 무대로 武器·예술품·골동품 따위를 다루는 대로 중개 거래하여 그 코뮌을 유일한 수입원으로 삼으며, 娼家겸 유희소 <黑猫>가 본거지인 양 酒色과 도박으로 수입을 털어버린다. 아주 총명하면서도 항상 道化役者같은 언동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연막을 치는 등, 奇行으로 좀 중잡을 수 없지만, 속은 정직하고 의리를 지킬 줄 아는 인물 男爵으로 통하고 있다. 스스로 모친은 헝가리 女人이고 부친혈통으로 프랑스인 이라고 밝힌다.<sup>2)</sup> (말로는 30여년 후에 長官신분으로 東南亞 순방시 마치 그를 실제 인물인 양 싱가포르에서 再會하여, 그 여전한 도화역자같은 언동으로 장시간 희대의 모험가를 主人公으로 한 영화제작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反回顧錄」). 3대소설 총 등장인물 약 40명이 11개국에서 모여들고 있다. 그밖에 「黑猫」에 모인 창녀들조차 人種展示場을 망블케 한다.

이렇듯 등장인물 대부분이 정신적인 무국적 내지 실향인 들이며, 그들이 한 작품에 얽혀 든다는 첫 특징부터가, 아무리 같은 모험적 행동이나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다룬다 치더라도, 한국작가의 작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인간관계에 속한다는 점에 우선 주목해 두자.

## 2. 血緣·가족관계

무국적·부동 인간이란 일체의 예사롭고 자연스런 연줄(liens)에서 벗어나고, 그것을 거부·이탈한 인간일 밖에 없다. 따라서 그의 작품에서 핏줄기(혈연)와 애정의 얽힘으로 이루어지는 가족관계는 극히 예외적이다.

a) 敵對夫婦關係와 家門意識(Vannec 老人) : 「왕도의 길」에서 클로드의 회상 속에 떠오르는 완강한 祖父 바벡그 Vannec老人이 말로 자신의 조부에 관한 진기적 사실과 대체로 일치한다는 점은 널리 알려진 말이다.

총세의 웅맹한 바나의 浪人族(때론 칩략·약탈자)바이킹의 후손인 바벡그老人(말로는

1) CH. p. 50.

2) CH. p. 25.

「反回顧錄」에서 그 점을 자랑스럽게 밝히고 있다)은 역시 선박·해운업을 이어받아 35세에 결혼한다. 혼례 12일만에 아내는 친정으로 돌아간다(이유 밝히지 않음). 친정 아버지는 돌아온 딸을 만나 보려고도 않았고, 어머니는 <가봐라, 이 모든 일도 자식을 가지게 되면...> 하고 단념한다. 그녀는 시가로 돌아오자 방안에 걸어두었던 <父母 사진을 벗겨 침대 밑에 던진다>(역시 혈연 끊긴 孤立人間이다). 그후 부부는 아무말 없이 며칠을 보내고, 아무 분쟁도 없으면서, 상호간에 <암묵의 적개심>이 일상 생활로 굳어버린다. 이 적개심은 말이나 싸움질로 표현되지 않는 반면, 악착스런 일의 경쟁 속에 피난처를 얻는다. 반듯도록 일하다 지쳤을 때, 서로 상대방의 방에 불이 켜져 있는 한 일손을 놓지 않고 버티는 판이다.

결국 부인 쪽에서 해결책에 걸렸으나, 병에도 무관심하여, 마친내 굴복 아닌 죽음으로 이 적대관계는 청산된다. 이 마넛夫人은 그의 작품에서 부부관계가 파멸로 끝나는 첫 케이스다. 서로 적개심을 불태우기 위해서 한 지붕 밑에 사는 묘한 부부관계!

그러나 친정 어머니가 말한대로, 그런 부부관계 속에서도 자식들은 태어났으나(역시<가문의식>의 발동으로?), 그녀의 기대는 깨끗히 빛나는 결과로 끝난다. <자식들마저 20세가 되자 전진 디 적막해지는 집을 떠나버렸고, 船團의 파선, 배상금지분 등 재난으로 몰락한 채, 마넛老人은 태길같은 집을 제대로 꾸려나가기 힘든 늙은 從妹를 거느리고 살아 간다. —차대전이 터져 클로드 부친이 전사하자, 어린 클로드가 祖父 슬하로 오게 된다. 오래 진부터 남편과 헤어져 혼자 살던 클로드의 모친이 아기를 보려고 찾아온다. 단 하나의 핏줄기 어린손자의 어머니(며느리)를 한 식구로 맞아들이는 전말을 이렇게 적고 있다.

「저녁녘이 되자 그는 그녀(며느리)를 만류했다. 자기가 살아 있는 동안 <자기> 거리에서 자기 며느리를 호텐에 묶게 한다는 생각이 익어왔기 때문이다. 그는 집안에 맞는 일이 양심과 兩立할 수도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는 (그의 夫婦관계 암시—억주)터이다. (H略)

누군가 그와 함께 살 수 있는 사람... 그녀(며느리)는 가난하지는 않더라도 파탄의 지경에 빠져 있었다. 그는 그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으나, 이상한 단체정신에 지배되고 있었다. 그녀 역시 그와 마찬가지로, 그토록 많은 어리석고도 교활한 愛語를 요구하는 인간들의 공동생활에서 외떨어진 여자였다. 從妹는 이제 너무 늙어서 집을 잔 꾸러나가지 못하는 형편... 그는 그녀보고 집에 비무르라고 타일렀고, 그녀는 그러기로 걱정했다.」<sup>3)</sup>

이렇듯 유일한 자기 핏줄기인 어린 손자와 더욱 가까운 핏줄기인 어머니(며느리)를 집안에 맞아들이게 된 동기가 情의 얽힘이 아니고 <단체(여기서는 한 家門)정신 esprit de corps>이며, 자기 며느리를 자기 거리(그가 적개심에 불타 있는 인간들이 사는)에서 여관에 묶게 할 수 없나는 자존심 때문인 것이다. 아울러 이 며느리 역시 사회적으로 고립된 인간형이란 점에 유의하자.

b) 理念上的 分身 父子와 同志 夫婦(Kyo—家) : 만로 작품에서, 예사롭고 평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엿한 가정을 이루는 유일한 경우가 지조르 Gisors—키오 Kyo 父子, 키오—

3) VR pp. 17-19.

메이 May부부가 이루는 한 가족관계다. 혁명이 키오를 주축으로 부친 지조르는 혁명 이데올로기를 한때 北京大學에서 注入·전파한 경력을 가졌지만, 지금은 직업적으로나 행동상으로나 사회의 권외에서 관조하고 분석하는(혁명보다 더 많이 인간문제에 끌려) 관찰자의 자리에 안주하며, 심지어 아편으로 현재의 고통에서 도피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념가 부친과 행동가 아들은 마르크스주의 혁명을 위하여 하나로 통합되어 서로 補完될 수 있는 이념상의 分身(double)이며, 과거와 현재로 代를 이루는 通時的 分身이다. 키오와 메이—메이는 당소속 병원에서 병든 동지, 上海蜂起 투쟁중에는 부상자 치료를 담당하는 혁명동지로, 평범한 가정적 內助者가 아니고, 적극적 혁명행동가들을 치료간호로 보호해주는 보조자로서의 동지, 결국 性을 달리하는 共時的 음·양의 相互 보조의 分身이다.

이 두 分身 사이를 맺는 연줄로 애정과 이념 중, 과연 어느 쪽이 더 강한 것일까? 속단할 수는 없는 문제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미 세상사를 초연히 달관하는 경지에 이른 지조르老人은 문제 밖에 두고, 적어도 자기 생애의 의미를 혁명에 걸고 있는 키오에게는 그 혁명 이념을 떠난 아버지나 아내는 있을 수 있으며, 설사 있다 치더라도 이 作品에서는 아무 의미도 없는 부정적 존재이며 방해자일 밖에 없다.

특례로 그 부부간에 애정문제가 개입되는 단 한 번의 유명한 에피소드를 검토해 보자. 메이가 시가전의 치참한 전개와 피·죽음의 살벌·허망한 광경에 충동적 자극을 받고, 다른 남자와 동침을 했다는 告白이 키오에게 일으키는 충격과 갈등—이념상으로는 아내의 완전한 자유권에 속함을 인정하면서도, 또 그런 행위가 애정 문제와는 하등 관계 없음을 알면서도, 감정상으로는 소화시킬 수 없이 응결되고, 따라서 무조건의 一體感으로 결합시켜 주던 그 애정 자체에 변질을 일으켜, 나와 메이와의 불안간의 분리·단절·거리감, 세사스럽게(거의 낯설게 보이는) 메이의 얼굴 모습(마치 자기가 녹음한 자기 목소리가 귀설게 들리듯이) 등 실존적 반응을 일으킨다.<sup>4)</sup>

그는 혁명동지 카토프와 함께 혁명사업을 위하여 거리로 나가 걸어가면서도 그 충격을 되씹는다. 갈등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 애정에 의하여 입은 상처는 후에 장개석 軍에 키오가 체포되게 될 위험한 外出 길에 메이의 同行하려는 애원을 거부할 만큼 속에 응결되어 있었고, 일단 혼자 집을 나선뒤에도 애정번뇌가 뒤따른다(결국은 동행을 승낙하지만).<sup>5)</sup> 결국 애정은 혁명가가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아킬레스의 발뒤꿈치>(vulnérable)일 수도 있으며, 적어도 행동에 방해가 된다는 점(<생애 작품>에서도 중요함)은 그의 철석같은 同志이며 의돌인 카토프의 과거(후에 言及)와 현재와의 비교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그리고 이 한 쌍 간에 아기가 없음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아기를 가진 혁명동지부부란

4) CH. pp. 40-45.

5) CH. pp. 167-172.

처음부터 想定 불가능의 혈연관계라는 점은 다음 매우 상징적인 에멜리크(Emmelrich) 一家로 例示된다. 후에 말로의 실생활에서도 그의 뼈저린 경험으로 증명해 준다.

c) 행동을 묶는 질곡, 汚辱의 수령(엠멜리크一家): 가난·오욕·고통이 한 굵으로 물려 흡사 빠져나올 수 없는 개미지옥 같은 현장이 바로 엠멜리크의 가정이다. 어린시절부터 학교는 이튿에 한번씩 결석, 알콜중독의 片母, 공장, 직공, 임대, 영창생활, 전쟁, 毒가스 피해, 제대, 인도지나를 거쳐 上海까지 흘러온 역시 실항·부동·고립 인간이다. 중국인 투—유—선 Lou-you-Shuen과 같이 경영하는 흑염기상으로 간신히 호구지책을 삼고 있다.

그의 아내는 중국 빈민계에 흔히 있듯이, 12달리로 팔렸다가, 사간 녀석이 버려, 먹고 자기 위하여 그의 가게에 끌려들었다. 가스중독의 후유증으로 자주 앓는 그를 헌신적으로 간호하다가, 결국 <눈멀고 들볶인 강이지같은 사랑으로 그에게 매달려>, 마침내 아기가 낳게된 것이다. 그런데 그 아기가 <側頭骨炎>을 앓아, 언젠가는 안면의 뼈를 깨야만 한다는 메이의 진단이다.

上海蜂起가 성공한 뒤 장개석司命官이 入城, 武器 만남령이 내려 혁명진영이 초긴장상태에 있고, 첸은 장사령관 암살을 결의하고, 동지 2명과 폭탄을 가지고, 밤이 될 때까지 엠멜리크집에 피신 잠복하기를 바란다. 그는 거절할 수 밖에 없다.

「폭탄, 지금 이때에 난 그럴 수 있어. 놈들이 여기서 폭탄을 발견하는 날에는 아내와 애새끼를 죽일거야.」

가게를 혁명의 모의장소로 제공하고, 그 자신도 기성사회에 원한과 증오만을 품어오면서도, 妻子에 묶여 꿈쩍도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저주하던 그가, 피신처 제공이라는 소극적인 협력마저 처자때문에 거부해야 할 판국에 이른 것이다. 그리고 자기의 배신을 그 자신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으며, 스스로 용서할 수 없는 비참한 심정.

「그는 자기 거부를 스스로 용서할 수 없었다. 고문을 당한 끝에 비밀을 토해버린 자처럼, 그는(또 다시 당하면) 그가 이미 한대로 또 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면서도 그것을 스스로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자기 정운을 배반했고, 자기 욕망과 꿈을 배반했다. “어떻게 배반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中略)

첸과 함께 뛰쳐 나가, 그 가방 속의 폭탄을 하나 꺼내들고 던질것. 그것이 그의 良識이었다. 그리고 오히려 현재의 삶에서 하나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 유일한 일이었다.」

그 곤궁 속에서는 죽는다는 것도 사치에 속한다. 그는 바로 이웃에서 살며 너무 가난에 시달리다가 妻와 네 子女를 남긴채 자살한 러시아인의 시체를 화가 치민 아내가 두들겨패던 일이 생각난다.

「만약 돈을 가졌다면, 그 돈을 그들(妻子)에게 남길 수 있었더라면, 그는 목숨을 던지는 것도 자유로웠을 것이다. 세상은 마치 한 평생 내내 매매기에 발길질 하듯이 그를 대하지 않기로도 한듯이, 지금 세상은 또 그가 가진 그가 가질 수도 있었을 유일한 존엄성—죽음—에서 그를 빼앗아가는 것이

있다.」<sup>6)</sup>

이토록 그를 가난·고통·汚辱 속에 묶어 놓는 울가미인 妻子중 어느 연줄이 더 강인하게 그를 묶어놓고 있는가? 때로는 자기 신체의 화풀이로 공연히 괴롭힐 수도 있는 아내 쪽보다, 더욱 병약하고 불쌍한 아들의 뒗줄기쪽일 밖에 키오부부간에 아기가 없다는 <특별 조건>과 엠멜리크의 이 고질적인 자식의 울가미와 그 에 정번뇌는 후에 말로 자신의 비밀과 부딪치게 될 때, 다시 상기되어야 할 점으로 유념해 두자.

d) 가정 없는 민족주의 聖者(첸다이 Tchen-Dai) : 이때껏 보아온 유형들은 혈연·가족관계 속에서 애정의 연줄의 부정적 면, 내지 이를 거부하는 기질을 드러내 보였다. 그들은 모두 조국을 이탈하고 현 사회를 부정하는 철저한 이탈자들이지만, 이에 하나의 反證처럼 맞세울 수 있는 유형이 「征服者」의 3大 主導人物중의 하나인 國民黨 지도자 첸다이이다.

그는 부유한 知識人(中國文人으로서의 깊은 교양은 물론이고, 詩人이며, 英佛語를 구사하는 현대적 인텔리)으로, 두번 상처하여 子女 없이 혼자 늙어가는 민족주의적 國民黨 廣東政府의 지도자이다. 그는 일체 公職을 사양하고 <중국의 간디>로 대중에게 대단한 정신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물이다.

그는 국민당 인도지나 支部長을 맡음으로써 公생활을 시작하여, 자기 재산을 털어 중국의 노동자들을 보호하며, 실직자를 구원하고 노비를 주어 귀국케 하는 등, 그에게는 자선활동이 곧 정치운동을 대신하는 일이 된다. 병원에다 당원과 그 가족들을 거절함을 보고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용자하여 병원설립을 착수한 후, 점점 가중하는 온갖 장애와 방해에 물려 결국 전 재산을 거기에 投入하고 만다.

차츰 그는 자비·無慾無私·국민당 혁명의 파수꾼(영도자 아닌)·자기 희생·正義의 수호자로서의 인간상을 형성하여, 마침내 孫逸仙의 정신적 후계자로서의 신망을 얻게 된다(孫文의 사망후 그를 당총계에 추대하려 하였으나 거절). 그러나 그는 가족도 없고, 현실적으로 그를 뒷받침해 줄 어떤 정치적 조직체도 없이, 당내에서 홀홀 단신의 老驥로 도도하게 휘몰아치는 혁명과(인터네셔널에서 파견된 보로딘과 선정국장 가린이 주도)에 대항하여 오직 자기 신념과 정신적 영향력으로 맞서 있는 터이다.

「...그러나 삶과 죽음에 있어서의 이 孤獨이 그를 떠나지 않고 따라다닌다. 그의 영광의 유산, 그는 그것을 다시 일어난 中國에 물려주리라. 오호라!... 한때 부유했던 그가 거의 가난뱅이 신세로 죽으리라. 그리하여 그 죽음의 위대함을 수 백만의 사람들 위에 흩어지 가리라. 최후의 고독... 이 젊은 누구나 알고 있으며, 또한 그 고독이 나날이 더욱 긴밀하게 그를 당의 운명과 맺어준다는 점도 알고 있다.」<sup>7)</sup>

말로 작품 중에 중국의 文化 전통과 사회민중 속에 깊이 뿌리박은 예외적인 유일한 人物

6) CH. pp. 151-3.

7) Cq. p. 85.

조차 이렇게 혈연·가족 관계만은 배제되어 끝내 외톨이며, 그 <고독>이 더욱 그를 당(조국·민족)과 긴밀히 <결합>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케 한 짐은 이때껏 우리가 보아온 혈연·가족관계의 否定내지 거부 중에도 예외적 존재로 주목될 만하다. 혈연 없는 고독한 죽음(사상은 정반대이지만) 키오 사망 후의 지조르에게도 똑 같은 죽음이다(이 점도 그의 <생애·작품>의 한 특징으로 유의 할 일).

### 3. 男女關係의 파탄과 에로티슴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지 않는 남녀 결합의 관계는 대체로 3가지 유형——同居生活·情婦(夫)관계·매음관계——으로 나뉜다.

a) 삶의 침체·부패의 운상: 물론 처음에는 서로 좋아서 동거생활을 시작한다. 생활이 틀잡힌 軌道를 진행하게 되자(실은 평범한 社會人에게는 그것이 정상적인 생활이지만), 자기가 <저 자신의 생활의 囚人(감금된 자) prisonnier de sa propre vie>임을 발견하고, 그 감옥을 탈출하고 만다.

① 페르캉·사라 Sarah한쌍의 삽화. 사라는 페르캉과 만나기전에 삼王子와 결혼한 적이 있으며, 화려하고 많은 경험을 가진 여자다.

「자네(콜로드)는 저 자신의 생활의 囚人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짐작할 수 없을 테지—나도 우리가, 사라와 내가 헤어졌을 때 그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으니까. (中略) 삶은 알지만 죽음은 모르는 여자였지. 어느날 그녀는 자기 생활이 하나의 형태—그건 내 생활의 형태—를 취한 것을 알았어. 자기 **숙명이 거기있고** 다른데 있지 않다는 것을 말야. 그러자 그녀는 나쁜 자기 거울 만큼이나 증오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열대 풍토가 그녀를 영구히 열병 환자로 만드는 것을 거울 속에 또 한번 보는 囚人 여자의 그 시선, 알겠나?...) 젊은 여자의 온갖 옛 기대가 마치 청년기에 걸린 梅毒처럼 그녀 삶의 속을 파먹어들어가기 시작한 거야—그리고 내 삶도 그녀한테서 전염 되어 마완가지로... **한정되고 반박할 수 없는 숙명이** 마치 규칙(감금생활의 준칙—역주)이 죄수를 던치듯이, 자네를 던친다는게 어떤 것인지, 자네 아직 모를테지.— 너는 그것이 될 것이니 다른 것은 되지 않으리라는 확실성, 너는 그것이 있을 테이고 다른 것이 아니었으리라, 내가 지금 가지지 못한 것은 영구히 가지지 못하리라는 그 확실성 말일세. 그리고 자기 뒤에는 온갖 자기 희망(이루지 못하고 단념해야하는—역주), 자기 피부 속에 간직한 자기 희망들(...)」<sup>8)</sup>

후에 그의 집념의 보다 깊은 비밀이 환히 밝혀지겠지만, 우선 여기서 두빈이나 강조된 <숙명>이란 어휘에 주목해 두자. 하여간 동거생활이 틀이 잡히자 男女 양쪽이 모두 감옥에 갇힌 죄수처럼 판에 박힌 궤도 위에서, 진에 지냈던 모든 희망(기대)들과는 빛나간 방향으로 달리고 있음을 깨닫고 대경실색한 것이다. 말로의 人物들이 그 궤도를 그대로 달릴 리 만무하다—들은 헤어질 밖에.

② 카토프(Katow)의 同居와 투쟁의 친체의 삽화. 「인간조건」의 등장인물들 중 가장 강인하고,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철석같은 의지의 사내 카토프는, 위에서 애정의 질곡에

8) VR. pp. 58-9.

뉘여 꿈쩍 못하는 엠멜리크의 자조·자학의 울부짖음같은 고백(첸에 대한 거절)을 듣고, 저 자신의 경험을 회상한다.

시베리아 감옥에서 기진맥진하여, 온갖 희망을 잃고 돌아온 의학도 카토프는 학업도 계속할 수 없어 공장 노동자가 되어 <습관적으로> 혁명편에 계속 머무르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귀여운 女工을 피뎠다는 것으로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서글프게 증명>하며 살아간다. 혁명보다는 아무래도 그녀의 무한정의 애정에 대한 집념이 우세하였고, <몇 시간씩 그녀 머리를 쓰다듬고, 진종일 같이 자던 것이었다.><sup>9)</sup>

바로 이때 엠멜리크의 아이의 울부짖음 소리가 들려오자, 차마 입밖에 낼 수 없는 한 마디가 떠오른다—“죽음이 자네를 해방시켜줄 것이다”라고. 그리고 자기를 해방시킨 것은 죽음(女工의)이었다고 덧붙이며 앞의 회상이 이어진다.

이 짧막한 삽화는 이때껏 우리가 우회 포위하는 식으로 例擧한 모든 관계의 핵심적인 의미를 간단명료하게 찌르고 있다—일체의 애정의 연줄은 행동(모험·혁명)을 방해하고, <한정된 숙명>으로 묶어, 삶을 침체·부패케 한다.

b) 情婦 관계—同床異夢의 情事: 상대가 정부권 장녀진 나머지 남녀관계는 「王都의 길」 첫머리에서 페르캉이 토한 난폭스런 한 마디—<40세까지는 속아서 사랑에서 해방될 수가 없게 마련—한 여인을 섹스의 보조물인 양 여기지 않고, 섹스불 女人의 보조물로 여기는 사내는 사랑하기에 꼭 알맞지—그에겐 안 될 일이지만 할 수 없지.> 이 경구로 요약된다.

결국 에로티즘의 핵인 섹스에 있어 마치 혼자 씨름을 할 수 없듯이 꺼물어 여인을 상대할 밖에 없는 것이지, 처음부터 한 인격으로서 여인을 상대하다가 그 부속물인 섹스에 부딪치는 것(그런 난처한 사내가 빠지는 사랑의 함정)이 아니라는 뜻이다. 정부관계의 대표격이 「인간조건」중 佛亞借款團 총재 페랄 Ferral과 부유한 衣裳士 발레리 Valérie와의 관계다.

페랄은 사업가로서도 항상 남을 지배(소유)하고, 사업에의 이용도로 사람을 평가하듯이, 그는 오만으로하여 섹스를 통하여 女人이 자아를 상실하고 굴복(성감의 도취로)시켜 女人을 소유하며, 그것을 확인하여 지배자의 쾌감을 만끽하려는 태도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는 발레리가 아직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며, 필경 허영심(上海의 박강한 금융계의 거두를 상대한다는)으로 몸을 허락하고, 또 몸을 내줌으로써 자기에 대한 가장 귀한 찬미의 보상을 기대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녀가 <에무론 통하여 이 도도한 사내의 어린 시절의 모습의 일면이 별안간 드러나기를 기다린다>는 점과,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게 되도록하기 위하여 우선 정부의 자리를 차지>한 점을 그는 모르고 있다.

이 도도한 사내가 품안에서 상식 세계의 관습과 가면을 벗고 천진난만한 어린시절의 모습으로 탈바꿈하기를 기다린다는 이 女人은 다음 말로 비추어, 사내 쪽만 성숙한 자세로

9) CH. p. 176.

응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정부·애인을 접할 수 있는 여인이다.

“남자들에게는 旅行이 있지만, 여자들에게는 애인들이 있다”(월경 主語가 복수이니까 목적보어 애인들이 복수인 것이 아니고, 各女人마다 복수의 애인들의 뜻일 것이다. 다음 보충설명에 밝혀 준다).

“어떤 새 분장, 어떤 새 옷, 어떤 새 애인이건 (어자에게는) 새 心魂을 가져온다는 것은 어느 사내도 이해하지 못한다.”<sup>10)</sup>

종합하면, 발레리는 사랑의 상대를 바꿀 때마다 새로운 心魂으로 일변하며, 자기 품에 안긴 사내가 어린이처럼 친진스러운 자인 그대로의 모습으로 번모되기를 기다리는 여인. 그런데 페랄은 <그의 현재의 두쟁(사업상의)으로하여 사랑 아닌 에로티슴(그것도 정복욕의 一역주)에 갈취 있는> 사내, 사랑(그의 경우는 단순한 오입)에서조차 아주 옹졸하다. 만약 같은 에로티슴이라도 발레리에 대등할만큼 활달하여, 보들메에르의 <예술 즉 情事>를 뒤집어 <정사 즉 예술>의 경지까지 이른 고도의 에로티슴을 재득한 사내였다라면, 상대가 그런 女人이니 두 몸과 닮이 하나로 녹아드는 완벽한 한 쌍이 될 수도 있었으리다.

그런데 페랄은 한사코 섹스를 통하여 여자 얼굴에 나타나는 굴복(관능의 도취)의 표현을 확인하려고 애쓴다. 그리하여 한사코 전기 스탠드 스위치를 끄는 발레리에 거역하여, 나뭇끝에 스위치를 멀리 던져버린다. 발레리는 단념하고, 차츰 엄습하며 높아지는 성감에 몸을 내맡겨, 물 속에 잠기듯 <긴 脈動으로 기슭에서 멀리> 도취 속으로 잠겨 떠나가면서도, 의식의 한 구석에는 <결코 그들 용서하지 않으리라는 결심>이 싹트는 것이다.

과연 그녀는 지독한 우릉으로 복수를 한다. 약속한 같은 시간에 그녀는 피신한 채, 페랄도 잘 아는 영국인 은행장과 같은 선물(새가 든 세장)을 사환에게 들리고 호텔에서 서로 마주쳐 눈이 다 그녀에게 우롱당했음을 깨닫게 만든다. 熨越同舫까지는 아니라도, 결과적으로 男女 양쪽이 자기 섹스를 매개로 자기 따로따로 한때의 자기 욕망을 이루는 것으로 끝나는 同床異夢의 <오입>의 경우라 하겠다.

c) 媼女와의 관계—自我中心의 에로티슴 : 「王都의 길」에는 첫부분부터 갖가지 형태의 에로티슴이 등장한다.(鬚鬚의 화신같은 거친 사내 그라보 Grabot가 창녀에게 알몸으로 자기 알몸을 결박케 하는 헤괴한 마조키슴을 例示.)

① 저 자신과의 情事(페르캉) : 페르캉은 밀린의 原住民들이 外敵에 대비하여 풀이나 낙엽 속에 꽂아 놓는 毒바른 戰화에 찔린 무릎의 상처가 악화되어 통증과 함께 다리가 부어 오른다. 마을에 도착하여 순회 의사에게 다리 절단이 유일한 방법인데 그런 수술을 할 시설과 경험있는 外科醫가 없으니, 그대로는 15일을 넘길 수 없으리라는 죽음의 선고를 받는다. 의사는 지금으로서는 아편으로 진통과 휴식을 얻는 방법 밖에 없다고 아편을 권한다. 페르캉의 첫 반응은 보이에게 여자를 구해달라는 지시다. 그리하여 그의 작품에서 단 한번

10) CH. p. 98.



전개되는 현장의 자세하고도 약동하는 묘사에 부딪치게 된다.

여자의 무표정한 마스크가 차츰 변해가고, 입술이 열리며 바르르 떨리다가 다시 단히며 입구적에 경련이 일어나기 시작하며, 여자의 관능은 절정에 이른다. 보들레르의 표현을 빌면, <자아의 통제를 잃은 쪽>의 광란의 몸짓 앞에서, <더 조용하거나 덜 들린 쪽>이 느끼는 괴리감—알몸으로 한데 얽혀 한가지 <놀이>로 결합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정신은 전혀 딴 세계로 떨어져나가는 無名の 女人을 꺼안고 있는 사내의 외떨어진 격리감.

「입술 구석의 경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광란에 빠진 이 몽똥아리는 절망적으로 그에게서 멀리 떠나가고 있었다. 결국, 그는 지금이 여자의 관능적 쾌감을 결코 알 수 없으리라, 그물 요동케하는 이 (그녀의) 광란 속에서 최악의 격리감 이외의 다른 것을 찾을 수 없으리라.」<sup>11)</sup>

그 소용돌이 속에서도 그는 명석하게 알고 있다—<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만을 소유한다>. 여기서 소유한다는 것은 쾌락의 경우처럼 정복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와의 일체감 속에서의 전적인 파악을 뜻한다. 만약 사랑하는 남녀 사이였다면 그가 <결코 알 수 없을> 그 여자의 <관능적 쾌감>도, 그 여자의 표현을 자기 쾌감으로 번역하여 같이 나눔으로써 <격리감> 아닌 영육합일의 일체감 속에 녹아들 수 있을 것이다. 그 격리감은 <애정>의 연줄을 거부하는 代價랄 밖에 없다.

그러기에 눈을 딱 감고 그녀 아닌 <저 자신에게로 달려드는> 것이다.

「그녀의 움직임에 붙들려, 그녀에서 자기 몸을 뜯어냄으로써 그녀를 제 정신으로 되돌려 줄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그는 저 역시 눈을 딱 감고, 격렬한 나머지 그 얼굴을—그를 죽음으로 몰아붙이는 그 無名の 얼굴을 없애버리는데 취하여, 마치 動物에 달려들듯이 저 자신에게로 달려드는 것이었다.」

도취를 같이 나누어 느끼는 交感이 아니고 無名の 육체를 밀어 저 자신을 꺼안는 것이다—마치 테러리스트 첸이 폭탄을 꺼안고 질주하는 자동차를 향하여 몸을 던질 때와 같이, 격렬한 행동 속에 저 자신을 팍 꺼안는 것이다.

② 정신위생상 해독제로서의 에로티슴(가린). 「征服者」에는 이벨리 출신의 옛 아나키스트이며 중국에 와서 잡화상으로 생계를 이어가며, 중국 여인과 결혼하고도, 많은 계집애들을 下女로 끌어들이어 같이 사는 레베치 Rebecci(테러리스트 홍 Hong을 가르치고 돌보아준 인물)의 에로티슴이 언급되어 있지만, 그 이상 구체적인 설명은 없다. 그런데 작품의 1인칭 話者가 목도한 가린의 그것은 아주 노골적이고 철저하다. 출근이 늦은 그의 방으로 찾아가자, 침대서는 알몸의 두 중국여자가 질겁을하고 기성을 지르며 튀어나와 병풍 뒤에 숨는다. 가린은 태연하게 장교복 웃도리 단추를 끼우며, 보이를 불러 여자들이 옷을 입거든 돈을 주어 내보내라고 지시한다. 그리고 話者에게(리세 시절부터의 친구)하는 설명이 아주 간명하다.

11) VR. pp.156-8.

「여기서 얼마 동안 있으면, 자네도 알게 될 터이지만(가린의 권고로 廣東에 와서 협력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역주), 중국 여자들이 무척 신경에 걸리거든. 그런 때는, 진지한 일에 몰두하기 위하여, 최선책은 그녀들과 동침하고 그 이상 그녀들 생각을 하지 않는거지.」<sup>12)</sup>

상대가 창녀이니, 애정이나 교감이 결여된 점은 페르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이지만, 그렇다고 격리감이나 오뇌같은 심각한 느낌도 아예 개입될 여지가 없다. 그에겐 처음부터 그저 <진지한 일에 몰두하기 위해서> 즉 잡념을 씻어미리기 <위한> 한 수단이니까. 이렇다면 정신위생상 <이열치열>의 한 치료법과 마찬가지로다. 그러기에 (페르캉이 말한) <女人은 섹스의 부속물>쯤으로 여기는 대표적인 例라 하겠다. 페르캉의 경우도, 비록 창녀 상대이긴 하나, 아직 정사가 무엇을 <위한> 것이 아닌 그것 자체가 목적이었는데 비하여, 그의 경우는 처음부터 <수단>으로 전락된 그것이다.

이렇듯 男女關係는 통틀어 否定的이다—행동의 침해, 生자체권 <속명처럼 구속하고 파멸로 이끄는 동거생활, 정복욕의 발현의 하나로 시작되어 서로 한순간 따로 노는 것으로 끝나는 情婦와의 관계, 애정의 연줄을 거부 내지 기피한 행동가들이 의당 지들 밖에 없는 代價로, 창녀와의 관계에서 얻는 고절·격리감, 아니면 마치 주기적인 배설인양 잡념을 씻기 위한 한 <수단>으로 전락된 정사, 그 어느 것도 사랑으로 결합되는 자연스런 남녀관계와는 아주 거리가 멀다.

#### 4. 反社會·反世俗 孤立人間群

현재 품담고 있는 사회와 세속적 인간에 대한 멸시·혐오·거부·파괴 등, 부정적 자세는 말로의 人物들의 가장 철저한 공통적인 특징이다. 11개국에 걸치는 약 40명의 인물들 중 단 2명의 예외가 있을 뿐이다—「정복자」의 국민당 민족주의 지도자 쉐다이와 군관학교 교장(「정복자」), 청년 將軍 장개석(「인간조건」에서는 北伐軍 사령관으로 두 작품에 걸쳐 모두 幕後人物로 되어 있음).

그러니 일일이 예거할 필요는 없지만 그 몇가지 類型을 분류해보면, 인물 배치의 형태의 일단을 엿보는데 도움이 되리라.

a) 家長의 사회 혐오와 이탈(바넵그老人과 지조르): 늙은 가장이라면 누구보아도 오랜 연륜으로 사회에 깊숙히 뿌리박고 종횡으로 여러가지 관계의 연줄을 맺고 살아가는 것이 예사로운 일이건만, 말로의 작품에서는 그들조차 그와는 반대의 인간상이다. 바넵그老人은 기질적으로 사회에 적개심만을 품은 인간이지만, 지조르는 처음에는 이념적으로 혁명의 이데올로기를 신봉하며 퍼뜨림으로써 사회 전복에 소극적으로 참여했고, 아들 키오가 행동으로 실천할 때는 거의 사회에 무관심한 이탈자로 (키오는 인간분제 이외에는 자기 투쟁의 내용조차 그에게는 알리지 않을 정도), 인간문제, 고독, 인간에 의한 他人의 이해의 한계,

12) Cq. pp. 132-3.

등등을 명상하는 賢者의 모습으로 빈모한다. 아들 키오가 체포되어 자살한 후로는 아편으로 고통을 마비시키곤 한다.

이에 비해 바네그老人의 반사회는 아주 걱정적이며 행동적이기도 하다. 기성가치나, 사회에서 존중되는 덕목에 대한 적개심 때문에 洞사무소에서 체류를 거절 당한 서커스團을 넓은 풀안에 끌어들이는 극성스런 반항. 심지어 教會성직자들과도 반목하고 교회밖에서 미사를 혼자 보기까지. 아내, 다음은 며느리마저 일찍 죽고 혼자 남게되자, 거의 외출도 않고, 큰 집 안에 혼자 적개심에 가득찬 침묵 속에 나날을 보내다가 자살로 끝나는 완고한 노인이다.

**b) 모험가(페르캉, 클로드) :** 유령을 멀리 떠나서 불인까지 와서, 그것도 지배 민족에겐 매사가 무척 편리한 식민지 도시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현대 유럽문명이 아직 그림자도 미치지 않는 깊은 산중의 奧地에 群居하는 미개 원주민 부족들을 지배하여 자기 王國을 건설하려는 페르캉은 철저한 反 사회·反 世俗的인 인간일 밖에 없다. 클로드가 처음 그를 사귀게 되자 대뜸 그의 조부 바네그老人을 회상한 것도 그런 성격상의 유사점들이다.

「페르캉은 자기(클로드)를 키워준 조부가 자기와 맺어진 것으로 느끼는 사람들의 부류에 속하고 있었다. 민 친근성—기성 가치들에 대한 똑같은 적개심, 자기네의 허부 의식과 연결된 똑같은 행동에의 취미, 특히 똑같은 거부 등이 그렇다.」<sup>13)</sup>

그런데 페르캉은 기질뿐만 아니라, 인생관과 죽음에 대한 집념에서 유래되는 사회의 일상적 삶에 대한 열쇠와 혐오로하여 또한 그럴 밖에 없다.

그런데 클로드는 자기와 페르캉을 암묵 중에 맺어주는 것으로 그 점을 깨닫고, 그를 생각하며, 마치 그의 생각을 대변하듯이, 자기의 世俗人들에 대한 열쇠를 혼자 되씹는다. 그는 사회인들을 마치 자기와는 단 종류의 인간인 양 〈그들〉, 〈남들〉이라고 부르며 생각에 잠긴다.

「아이도 없고 妻도 없는 인간이 (사회)질서에 굴종하는 것이야말로 죽음에의 굴종 중에도 가장 깊은 굴종이다. 그러니 남들이 찾지 않는 곳에서 부기를 찾자(…)」<sup>14)</sup>

그래서 그는 이 세상에서 어떤 구제를 믿는 사람들의 〈이념들〉, 하나의 모델에 자기 생애를 맞추려는 자들 따위를 통틀어 〈충장들〉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선 자기가 몸담고 있는 〈이 침체한 세계에서 저 자신의 이미지들을 뜯어내버리는 것〉으로 첫 걸음을 내딛기를 다짐한다. 즉 낮은 자기 세계에서 未知의 세계로 떠나는 脫出(dépaysment, 出國)이 첫 걸음이다. 그래서 클로드는 지금 인도지나 古代 예술품 탐사를 위한 航海의 선실에서 그런 명상에 잠기고 있는 것이다.

13) VR. pp.16-7.

14) VR. p. 37.

들이 다 <죽음의 집념>만으로도 삶 자체의 허무맹랑함이 참을 수 없는 터에, 생계를 위하여, 혹은 남들의 존경을 받기 위하여, 그 사회의 온갖 구속에 얽매이고, 일정한 직업에 매달려 꼭 <제한된 숙명 속에서> 일을 하다가, 저녁이면 <강아지가 개장을 찾아들 듯이> 가정으로 돌아가는 판에 박은 생활이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이들 인텔리 모험가들과는 달리, 페르캥이 큰 관심을 가지고 관찰한 철저한 野性과 만용의 사내 그라보 Grabot가 있다. 도시 인간 세계에는 적응을 할 수 없는 만용의 사내. 군복 무중, 그의 발명을 인정해주지 않는 군의관을 미워하여 끌려주다가, 영장살이 일개월에 그의 고질인 화냥한 임질의 고통을 제 눈에 넣어, 자기는 애꾸눈이 되고, 그 군의관을 처벌케 한 사내. 아프리카 外人部隊의 탈영병으로 방콕까지 흘러온다. 知性이나 사람들과 나누는 재치의 취향 따위가 남아 있는 한 다소간에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켄인테, 그는 어떤 희망도 없고 스스로 무식한 야성인임을 자각하고 있기에, 페르캥이나 클로드보다도 더 세상과 동떨어져 있다고 페르캥이 인정할 정도이다. 게다가 유다른 에로티슴(알몸으로 女子들 시켜 자기 몸을 걸까케 하는 것으로 끝나는)으로하여 더욱 세상에서 소외되는 자, 그 굴욕감을 만용으로 벌충하는 사내, 찢리면 손톱 사이에 대나무 칩을 꽂는 고문보다 더 고통이 심하다는 독심섬이를 보고, 지독한 신경질적 역겨움을 느꼈다하여, 일부러 그 독심섬이에 찢려보는 사내다. 그런데 그는 다시 깊은 산중 輿地로 들어가서 결국 미개 원주민 부족에 붙잡혀 노예가 되고 남은 눈마저 뽑혀 마소처럼 네네 방앗간 맷돌에 묶인 신세로 끝난다.

c) 혁명가의 3類型: 이 진영이 주요 등장인물들을 차지 하지만 다시 다음 3가지 부류로 나뉘어진다. 거의 同床異夢 격의 유형들이다.

① 아나키스트·혁명 모험가(가린): 「정복자」중 레베치(Rebecchi)도 전에는 이 범주에 속했으나 작품 중의 현재로 보면, 테보리스트 흉을 키웠을 뿐, 영거주춤하고 정치·사회 문제보다는 에로티슴과 마법에 더 흥미가 쏠려있는 인물.

이 범주에 가장 대표적이며 흥미있는 인물은 主人公 가린이다. 슈네브 태생, 문과대학 수료, 파리에 아나키스트, 나테방조죄로 기소되어, 재판의 허망을 체험, 철저한 反社會의 자세를 굳히고, 外人部隊 자진 입대, 탈영, 도박 탕진...등의 경력의 소유자로 국민당 정부에서 일하는 옛친구의 초청으로 廣東政府 선전부 지휘, 인터내쇼날에서 파견된 보로딘, 국민당 지도자 쉐다이와 더불어 三頭권력자 중의 하나가 된다. 파리에서 재판을 받은 후에 作品중의 話者에게 털어놓은 심정은 그의 철저한 反社會 의식을 잘 요약해준다.

「나는 사회를 나쁘다거나 改善될 수도 있다고 여기는 게 아니고 그저 허무맹랑(absurde)하다고 여기는거야. (中略) 허무맹랑하지. <부조리하다(déraisonnable)>는건 아닐세. 이 사회를 누가 바꿔놓진 말전, 난 흥미 없어. (中略). 난 그저 반사회적 a-social일뿐, 내가 무신론자이듯이 말이야.」<sup>15)</sup>

15) Cq. pp. 57-8,

그러나 마르크스주의 혁명도 <폭동봉기의 기술과 취향>으로 그를 유인할 뿐이고, 그 <학설적 어휘>와 <특히 도그마티즘은 그를 격분케하는>것이다. 그의 친구 나라퇴르(話者)의 정확한 판단이다—<사실을 말하자면, 그는 혁명정신이 오직 바야흐로 시작되는 혁명에서만 생겨나는 종류의 사람><sup>16)</sup>이다.

그뿐인가. 중국혁명에 투신하려고 막 출발할 때 마르세이오까지 전승으로 따라온 話者에게 털어놓는 고백.

「난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지도 않아. 인민, 내가 그들을 위하여 싸우려 가지만 말아야... (中略) 내가 그들 편을 택하는 것은 단지 그들이 패배자들이기 때문이야. (中略) 우린 우리 공동의 투쟁을 가질 뿐, 하긴 그 점이 한결 더 뚜렷해 좋지.」<sup>17)</sup>

결국 투쟁의 적이 같을 뿐 (이 점은 실지로 말로가 사이공에서 反植民 투쟁을 위한 신문 창간 때에 베트남 안의 국민당 진영 華僑단체에게 한 연설에서 한 말과 일치), 목적도 결과도, 투쟁의 명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힘에의 의지>와 <폭동봉기의 취향>—철두철미 <반—사회적>인 입장이다.

그럼 왜 혁명에 가담하는가? 그에 있어서 <혁명의 감정이란 마치 外人部隊兵士에게 군대 생활의 취미>가 붙는 것과 같은 것이다. 외인부대가 강한 것은 <애국심>때문이 아니고, 일체의 애착을 끊은 사내들의 그 철저한 야성적 <힘>과 용맹심의 행사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코뮤니즘혁명 측에 가담한 것은 그 <힘의 가장 효율적인 사용>의 기회를 찾아, 그때의 <정세가 그에게 부과한> 편을 택했을 뿐이다.

「그는 권력에서 돈도 남의 존중이나 존경도 바라지 않았고, 오직 권력 자체를 바랄 뿐이었다.」<sup>18)</sup>

② 인텔리 코뮤니스트(키오, 카토프) : 니힐리스트가 아닌 진짜 신념과 정열과 행동력을 갖춘 코뮤니스트 혁명가이다. 따라서 헝가리의 파괴전복을 위한 투쟁은 마찬가지지만, 그 정열의 배후에 있는 인간성, 인간적 감정으로 하여 냉혹한 직업적 혁명가와 구별된다. 키오는 물론 그보다 훨씬 준엄하고 강인한 의지의 혁명가인 카토프(러시아 제정때 의과대학생으로 혁명에 투신)조차, 인터내셔널의 국민당과의 타협노선(上海·봉기 공산당 세력의 장개석 軍과의 타협의 표시로 무장해제 하라는 中共본부의 지령)에 선선히 응할 수 없었고, 따라서 북벌군에 의하여 체포 처형된다(인텔리와 혁명과의 숙명적 관계에 주목).

③ 직업적 혁명가(보로딘) : 직업적 혁명가에게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이상이나 정열, 노동자·빈민들에 대한 동정이나, 구원에의 의지, 그런 따위 인간적 감정이나 정의감과는 일체 인연이 없다. 한 직업인으로서 무조건 당의 명에 복종하여, 오직 가장 효과적으로 혁명

16) ibid. p. 60.

17) ibid. p. 64.

18) Cq. pp. 52-3.

을 수행할 뿐이다. 따라서 그가 그 사명을 띠고 와 있는 현 중국사회는 그에게 주어진 〈原資材〉일 뿐이다. 그 원자재를 가지고 혁명이라는 공작을 해나갈 뿐이다.

「보로딘, 그는 大事業家요. (中略) 사문을 볼 때마다, 〈그건 내게 이용 될 수 있을까? 있다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야만 하는 사람이예요.」<sup>19)</sup>

어쩌다 〈정세에 따라〉 한 진영에서 투쟁하는 가련은 그를 평하여,

「그 자는 혁명가를 제조하려는 거야, 마치 포오드가 자동차를 제조하듯이!」<sup>20)</sup>

라고 반발한다.

만약 혁명이 이루어지면 그는 과연 그 사회에 뿌리박을 수 있을까? 이 인간 기계 〈大事業家〉는 환히 얼굴 내놓고 주위 사람들과 평범한 일상생활의 연출로 멋이져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비밀조직의 혁명사업·공작이 몸에 배인 전문적 직업인으로 굳어버렸다. 그 전문직업을 떠나시는 이미 존재이유가 없어질만큼 그 방면의 숙련공이다. 필경 혁명후에는 비밀경찰로 역시 그 사회의 장막 뒤에서 활약하거나, 아니면 다시 다른 나라 혁명 공작원으로 파견되리라.

**d) 비밀 경찰과 복수자(니콜라이에프, 코히니) :** 「정복자」의 니콜라이에프 Nicolaïeff는 천성의 비밀경찰원이며 변절·배신으로하여 사회의 장막 뒤의 畜生者 타입이다. 러시아 제정 때는 제정 비밀경찰의 끄나블로 一차 세계대전 전에 러시아 혁명 테로단체에 가입하여, 진짜 테로리스트인 자기 아내에게서 얻은 정보로 밀고를 하여 많은 투사들을 체포케하고 상금을 취득한다. 그 아내도 변사하고 투사들이 그를 의심하여 멀리하자, 밀고 자료도 얻지 못하여 궁지를 헤매다가, 전쟁 중에 전선을 떠나 중국 天津으로 흘러들어온 자다. 廣東까지 내려오자 이번에는 광동 국민당 정부 비밀경찰의 밀고자로 옛 직업의 솜씨를 발휘한다. 마침내 그 방면의 재능이 인정되어, 발탁되어 정시청장의 자리에까지 올라왔게 되어 소련 비밀경찰에 소속된다. 〈소련인들은 그의 옛직업을 잊은 듯하다〉<sup>21)</sup>고 꼬집지만, 소련 공산당이 나 니콜라이에프나 양쪽이 모두 철저히 현실주의자며 이용가치 위주의 입장이다(다만 그 당시에 벌써 그 점을 看破한 말로의 炯眼이 놀라울뿐).

「인간조건」의 코니히 König는 자기가 당한 고문의 고통감으로 복수의 化身, 〈세계의 절대적 否定〉 속에 갇힌 고독자다. 현재 장계석의 보안책임자인 그는 체포된 키오의 구명운동을 하려간 클라팍크에게, 노동자도 빈민도아닌 키어가 어찌 공산당원이 되었는데고 묻는다. 〈인간의 존엄성(汚辱의 세계에서 허덕이는 무산계급의)에 대한 의지〉 云云하고 말을 꺼내자, 대뜸 〈존엄성이라!〉하고 반문하며, 격렬한 어조로 자기 경험을 피력한다. 러시아

19) Cq. p. 16.

20) ibid. p. 201.

21) Cq. p. 127.

白軍 장교(보로수용소 독일어 통역으로 白軍에 종군한 독일청년)계복을 입은채 赤과 白 어느 쪽에도 흥미가 없는 그가 독일로 돌아가는 길에 赤軍에 체포되어있다. 추위에 이미 반송장이 된 그를 마구 두들겨패 끝에, 양어깨 전장에 붙은 별 위에 손가락만한 못을 내리꽂는 지독한 고문을 당한다.

「난 여자처럼, 송아지처럼 울었어... 내가 그들 앞에서 울었던 말이야. 알겠나? (中略) <내 존엄성>, 내겐 그건 그들을 죽이는 일이야. 중국이 다 뭘가, 헬! 중국이라! 웃기지 말아! 난 오직 놈들을 죽이기 위해서 국민당 안에 있는 기야.」<sup>22)</sup>

결국 복수라는 철지한 肯定의 집념 이외에 그는 자기가 몸담고 있는 사회와 심지어 자기가 소속된 국민당과도 어떤 연결로도 맺어져 있지 않다고 자인하고 있는 셈이다.

e) 완전 이탈의 테러리스트(홍, 쉐): 앞의 니콜라이에프와 키니히의 경우는 그래도 아직 직책에 의하여 사회적 실체인 당의 조직과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테러리스트는 당 편에 서있으면서도 본질적으로 아나키스트이다.

그뿐더러 살인의 경험과 끊임 없이 살해의 기회를 노리는 그 집념으로하여, 아주 인간세계 자체에서 이탈 고립된 존재로 영구히 처형되고 만다.

「정복자」의 홍은 고아로 자라 서양인(이탈리 출신의 레베치)의 보호와 교육을 받아 프랑스語 영어 서적을 읽는 지식인이면서도, 청년기에 접어들면서부터 타고난 기질과 젊음의 격정, 그리고 그의 <유일한 경험인 빈곤의 경험에> 온 정신이 사로잡히고 만다. 그는 말한다.

「이 세상엔 오직 두 인종이 있을 뿐, 가—난—뱅이와 그 밖의 인종」<sup>23)</sup>

따라서 <그 밖의 인종>에 대한 증오, 사람을 비굴하고 나약하고 지사스럽게 만드는 그 가난에 대한 증오. 그래서 온몸이 증오의 물결로 떠오르는 사내다. 결국 당의 노선에 불복하여 <중국의 간디> 쉐나이를 살해하고, 보로닌에 의하여 처형되고 만다.

이 홍과 分身 관계의 한쌍을 이루는 「인간조건」의 쉐은 소설 칫머리의 살인 장면의 主人公이다. 고아, 서양인(지조르 老人)의 보호와 교육, 같은 人生에 대한 니힐리즘, 같은 증오심과 테로 중독자로 두 작품에 걸치는 절묘한 분신의 일례를 제공한다. 그러나 홍보다 정신적으로 더욱 심화되어 인간 세계에서 떨어져나간 어둠의 세계에 잠입한 자의 고독에 사로잡힌다. 심지어 시가전에서 厠上으로 기어올라가 동지들과 양팔로 인간사슬을 만들어 쳐마릴 창으로 수류탄을 投入하는 유명한 장면에서, 그 사슬 속에 팍 끼인 채로 여전히 孤絶感에서 벗어나지 못할 정도이다.<sup>24)</sup>

22) CH. pp.224-5.

23) Cq. p. 139.

24) CH. p. 87.

남과 소통될 수 없는 이 고절감의 고뇌와 집념은 마침내 테로 상대(장개석 사령관)의 자동차 밑으로 폭탄을 꺼안은 채 몸을 던지는 살인과 자살이 합쳐진 살인 행동 속에서 적어도 저 자신을 꼭 껴안은 일종의 황홀감을 느끼기까지 한다.<sup>24)</sup> 그의 모든 인물들 중 가장 극도에 달한 이탈의 한 쌍이다.

### 문헌목록 및 약호

- André Malraux: *Antimémoire* (Anti), Gallimard, 1967.  
 André Malraux: *La Condition humaine* (CH), Gallimard, 1933; Livre de poche, 1954.  
 André Malraux: *Les Conquérants* (Cq), Grasset, 1928; Livre de poche, 1958.  
 André Malraux: *La Voix royale* (VR), Grasset, 1930; Livre de poche, 1954.  
 André Malraux: *L'Espoir*, Gallimard, 1937.  
 André Malraux: *Les Noyers de l'Altenburg*, 1943.  
 André Malraux: *Oraisons funèbres*, Gallimard, 1971.  
 André Malraux: *Hôtes de passage*, Gallimard, 1975.  
 André Malraux: *Lazard* (in *Le Miroir des Limbes*, T.II. *La corde et les souris*, ch. VI), Gallimard, 1976.  
 Alain Malraux: *Les Marronniers de Boulogne*, Plon, 1978.  
 Jean Lacouture: *Malraux, une vie dans le siècle*, Seuil, 1973.

25) *ibid.* p. 196.



## Un sens caché: Vie-OEuvre d'André Malraux

—Structures oppositionnelles détachement/attachement et préfiguration du destin—

**Pung-Gu Kim**

Pour nous autres asiatiques, entreprendre une étude sur un écrivain occidental semble toujours une véritable gageure. Entre le désir de comprendre et la réalité visée se dressent d'innombrables obstacles. Ceux qui sont dûs aux différences structurelles des langues ne sont certainement pas les moindres. Ces différences des systèmes linguistiques reflètent d'ailleurs tout bonnement celles des civilisations. Voilà donc un fossé apparemment infranchissable ou du moins que personne n'osera tenter de franchir les yeux fermés.

Pourtant rien ne pourra nous empêcher d'aimer un écrivain étranger. Qui sait d'ailleurs si, en l'aimant passionnément, on n'arrivera pas à accéder, par-delà ces difficultés et dans une communion d'âme à âme, à la vérité de ce qui fait sa vie et son oeuvre? Quant à moi, cela est devenu petit à petit une conviction et c'est effectivement ce qui m'est arrivé --est-ce seulement une illusion?—avec André Malraux. Je l'ai toujours aimé d'un amour profond. Je tiens absolument à le dire, car mêmes les méthodes, relativement nouvelles pour certains de leurs aspects, que j'emploie ici n'auraient pas été concevables sans cet entretien imaginaire que j'essayais d'établir et de maintenir durant de longues années avec cet homme exceptionnel. Oh! je sais, de si loin, mais qui tout de même m'a donné de profondes satisfactions chaque fois que j'avais l'intime conviction de pénétrer au plus profond de son être.

La présente étude tente d'articuler deux concepts d'analyse que mes lectures d'André Malraux m'ont progressivement conduit à poser comme fondement indispensable pour toute interprétation du sens caché de son univers. Le premier est celui de "vie-oeuvre" que je propose de distinguer de ce qu'on appelle communément "vie et oeuvre". Ce mot composé traduit bien évidemment une démarche consistant à chercher une unité de ce que fut l'existence d'André Malraux, cette dernière n'étant pas d'un côté une vie et une oeuvre de l'autre, mais à la fois les deux se renvoyant d'étranges échos, se laissant lire l'une à travers l'autre et créant ainsi une lisibilité quasi homogène des deux domaines; leurs barrières sont abolies dans une fusion sans cesse renouvelée et dégagant une puissante énergie qui modela l'homme et dans ses créations et dans ses aventures.

Nulle part ailleurs, la biographie ne fournit peut-être autant de clés pour la compréhension de l'oeuvre et vice-versa. Mais d'une manière plus générale, je refuse absolument les postulats de certaines méthodologies prétendument scientifique qui veulent superbement ignorer l'homme au seul profit de l'oeuvre. C'est une regrettable pollution de l'esprit chaque jour plus envahissante qui risque de nous conduire à brève échéance à une cécité intellectuelle totale.

Le second concept fait intervenir les structures oppositionnelles de deux thèmes: détachement et attachement. Ces derniers ne sont pas seulement investis dans l'oeuvre. Ce sont plutôt deux lignes de forces qui traversent constamment la vie et l'oeuvre, deux faces actualisées d'un destin suprême. Le détachement, dont il sera question dans cet article qui en prévoit d'autres, signifie la rupture avec tout ce qui nous a fait tels que nous sommes, famille, tradition, religion, etc. L'attachement est un mouvement inverse, une force mystique qui, défiant notre volonté de départ, nous fait toujours retrouver notre passé, notre racine. Flux et reflux, départ et retour, grand large et terre natale...et, à la fin, "retour de l'enfant prodigue." Tel fut le destin de l'écrivain et tels furent aussi ceux de ses personnages. Le grand retour, pour André Malraux parti aux confins de l'Asie misérable et éblouissante, millénaire et révolutionnaire, sera vers sa France, sa civilisation occidentale.